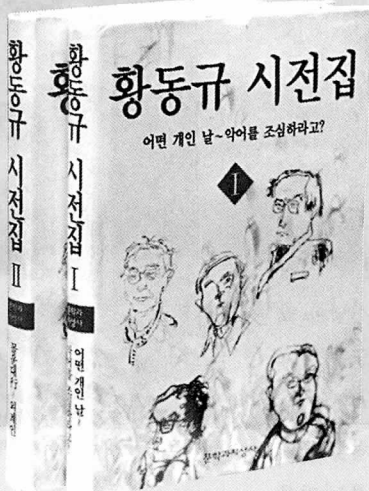


# “나의 삶이 곧 나의 문장이다”

문학과 삶의 현장에서 체득한 문장론

김용택 | 시인



나는 학교에서 문장수업을 받지 못했다. 대학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를 통해서 문단에 나갈 때까지 나는 글을 쓰는 사람

하고 문학을 이야기해본 적도 없다. 글을 읽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나는 글을 쓰고 싶었다. 처음은 소설도 습작해보고, 희곡도 쓰려고 노력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역사도 공부해보고 싶고, 하여튼 손에 닿치는 대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었다.

## 선배 시인의 시 흉내내기로 보낸 습작기

그러다가 나는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 시 쓰는 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많은 시인들의 시를 읽었으므로, 많은 시인들의 시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김중삼의 시를 읽고 그의 시를 흉내내보기도 하고, 고 은의 시를 읽고 고 은의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박용래의 시를 읽고 박용래 시를 닮은 시를 써보기도 하고, 황동규·강은교·서정주 등 참으로 많은 시인들의 시 흉내를 냈다.

황동규의 시를 많이 써 본 것 같다. 그의 시 <시월>을 많이 써본 기억이 난다. 고 은의 시도 많이 써봤다. 그의 시집 <부활>(민음사) 속에 들어 있는 시들은 언제 읽어도 나를 사로잡았다. 김춘수의 시들도 많이 써본 것 같다. 그의 시를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시와 비슷한(?) 이미지를 따서 나도 한번 흉내를 내보곤 했다. 잘 될 리가 없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비슷한 말들이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다가 한동안 습작을 멈추고 지냈다. 1980년대였다. 1979년부터 사회과학 서적에 매달리면서 민족문학·민중문학·농민문학·노동문학에 매료됐다. 그러다가 1982년 문단에 나갔다.

문단에 나가면서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느티나무 밑에서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이야기가 참으로 신나고 재미가 있었다. 아름다운 서정시를 쓰는가 하면, 힘있는 판소리 가락으로 현실을 비판하기도 하고, 금세 와르르 웃어제끼는 해학이 흘러 넘쳤다. 그들 옆에 앉아 있으면 완전히 판소리 마당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었다.

현장감 넘치는 풋풋하고 싱싱한 언어들이 난무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고스란히 옮기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함께 논 일 밭일을 할 때 나는 어머니가 미세한 자연현상에 곱게 반응하는 것을 봤다. 섬세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는 자연현상을 말로 표현해냈다. 말을 글로 찾아 헤매는 나에게 어머니는 글의 모든 것을 대주는 유일한 젖줄이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신나고, 서럽고, 행복했고, 분노했으며, 세상과 아름답고도 엄숙하게 화해하기도 했다.

## “가장 훌륭한 글은 쓴 사람의 향기가 나게 마련이다”

나는 머리 속으로 글을 지어내지 못한다. 산문집 <섬진강 이야기>(열림원)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 누구에게 산문 쓰는 문장법을 지도받지 않았다. 나는 그냥 내가 겪었고, 이야기를 들었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베껴 썼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나는 충실하려 했다. 내 산문에서는 그 어떤 누구의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나는 그 누구의 어떤 글을 따오지 못한다. ‘예’를 든 적이 있거나, 어떤 글귀를 따온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래서 내 글은 어려운 말이 없다. 사람들은 그런 내 글을 보고 너무 쉽다거나, 평면적이라거나, 한쪽 삶만 이야기한다거나 하지만, 글이란 대체 무엇인가. 글이란 그 시대에 충실한 ‘말’이 아닌가. 도대체 어디에 글의 전형이 있단 말인가. 가장 훌륭한 글은 그 글을 쓴 사람만의 독특한 향기가 나는 법이다. 어떤 글을 읽고 그 사람의 향기를 맡으면 된다. 그러므로 나의 문장수업은 나의 삶이었다. 나의 삶과 형식이 내 글의 내용과 형식이 돼줬다. ●